

해양수산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 멸종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며, 대형저서동물 서식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30일(화)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km²)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있으며,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생태계조사(‘23.4~9)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23.11~12)를 개최하였으며, 지정 범위에 대해 여수시 및 지역주민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편,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약 92.04km²)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이다은 (044-200-5313)

참고 1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지정 개요

□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 (명칭)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주변지역 갯벌
- (면적) 약 38.81km²
- (목적)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



□ 여수갯벌 전경



* 사진 출처 :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기술연구소

□ 주요 서식 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서식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 사진 출처 :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기술연구소